

네 편의 따뜻한 우리마을이야기

오늘 저녁 7시 전통문화전당서 전주우리마을영화제 개최

(사)전주영상위원회와 전주시혁신센터,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협동조합 마을발전소 맥이 함께 주관하는 '2019 전주우리마을영화제'가 20일 저녁 7시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마을스토리 개발 및 공동체 정신 발견, 전주 시민의 영화·영상문화 저변을 확대하는 목적의 전주우리마을영화제는 올해 프레(Pre)형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마을이야기를 담은 네 편의 단편 작품을 상영한다.

전주우리마을영화제의 상영작은 올해 초부터 각 주관 기관들의 협조 및 진행을 바탕으로 구성된 마을 공동체의 일원들이 영화 시나리오 단계부터 촬영, 출연까지 영화 제작 전반에 직접 참여하며 완성한 것이다. 올해는 삼천포시대학 및 도시혁신센터의 개발 공동체 구성원들, 송천동 마을신문 등이 참여 주체가 됐다.

개막식에 이어 상영되는 작품은 모두 네 편으로 '다섯 번째 멤버', '은영이 마을을 만났을 때', '건지산 그 길을 묻다', '이웃사람' 등이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사회'라는 설정 속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역설하는 '다섯 번째 멤버', 낯선 이방인이 서서히 마을을 열며 마을 구성원이 돼가는 과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는 '이웃사람'과 '은영이 마을을 만났을 때', 다큐멘터리 '건지산 그 길을 걷다'는 전주시 덕진구의 아름다운 도시숲인 '건지산'의 자연과 문화적 가치, 건지산을 찾는 다양한 사람들의 풍경을 담았다.

한편 전주우리마을영화제는 앞으로도 전주 곳곳의 마을이야기를 시민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 갈 예정으로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를 발견해 나갈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영상위원회 사무국(063-286-04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충간공보물제651호박물관,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 운영

충간공보물제651호박물관(관장 이춘영)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전라북도 및 익산시가 후원하는 특별전 '연안이씨 독립운동가들, 가문을 빛내다'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대한의 백성과 독립을 위해 산화한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연안이씨 출신의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됐다.

연안이씨는 예로부터 나라와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지키는 의기를 지니고 있었고 이 같은 전통은 일제강점기에도 이어져 독립운동에 헌신한 결과 이동녕, 이경균, 이명균, 이석균, 이설, 이수흥 등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했다.

한편 이번 특별전과 연계해 10명 이상 30명 이하 단체를 대상으로 독립운동가에게 편지쓰기, DIY 태극기 시계 만들기 등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방문 전 대표전화(063-841-7277)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 투신한 이들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잠시나마 이들에 대해 생각하고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삼국시대 적벽대전을 눈앞에!

순창 향토회관에서 27일 판소리극 '화용도' 무료 공연

순창군은 오는 27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순창향토회관에서 판소리극 '화용도'를 군민들에게 선보인다.

공연은 남녀노소 누구나 관람가능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당일 선착순으로 무료로 입장할 계획이다.

이번 11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군민들에게 선보일 판소리극 '화용도'는 지난 5월 명랑시장, 6월 송소회와 함께하는 국악 Jazz 樂 락, 8월 망태할아버지가 온다, 10월 서울원드앙상블의 일반인을 위한 Wind story 사업과 함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에 선정된 마지막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연은 적벽가중 '군사설움타령'을 모티브로 한 판소리 극으로, 중국 위촉 삼국시대 적벽대전을 앞두고 조조의 군대인 위나라 군사를 사이에서 오랜 시간 전쟁에 시달리며 군사들이 느끼는 불안한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현대적 감성에 극적인 효과를 담아 제작되어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작품이다.

공연을 주관하는 '문화예술공작소'는 전북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 창작단체로 대부분부터 연출, 기획, 배우 등 창작공연에 수반되는 모든과정을 자체적으로 확립하여 제작하는 전통예술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높은 단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올 한해 군민들에게 다양한 분야·높은 수준의 문화공연



을 선보이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많은 공연을 선정 받았다"면서 "공모사업으로 선보이는 마지막 공연인 판소리극 '화용도'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순창군은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12월 17일 저녁 7시 '2019 송년음악회'를 계획 중에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교육문화회관, 대입 수능생 위한 문화예술 특별공연 '풍성'

전북교육문화회관(관장 오진)에서는 '대입 수능생'을 위한 문화예술 특별공연을 마련했다.

이번 공연은 전북교육문화회관이 수능 이후 호트러지기 쉬운 고등학교의 다양한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대입 수능준비로 고생한 학생들의 피로 해소와 자기개발 시기에 문화예술 경험을 통한 예술적 감성 함양을 돕고자 마련했다.

지난 18일 타악퍼포먼스 '히트'를 시작으로 19일에는 놀이극 '별주부가 땀'가 무대에 올랐다.

또 20~21일에는 뮤지컬 '프리즌', 25~26일은 마당극 '진짜 진짜 옹고집', 27~28일에는 비보이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수능콘서트에는 전주·완주 관내 관람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7,300여 명이 참

석할 예정이다. 오진 관장은 "학습으로 고생한 고3 학생들이 이러한 다양하고 풍성한 공연관람을 통해 학업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문화예술이 지닌 즐거움과 함께 예술적인 감성 및 창의성의 폭을 넓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익산시, 세대공감 문화예술의거리 예술제 개최... 청춘가요열전 · 문화산책공감 등 큰 호응

익산시는 최근 도시재생 지역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상인, 예술인이 함께 기획한 '세대공감 문화예술의거리 예술제'를 개최했다.

이번 예술제는 익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주민협의회, 문화예술의거리 경관협정 운영회(회장 삼미경), 숨리예촌(회장 송기대), 익산문화관광재단과 금강방송이 참여했다.

주요 행사로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아이들이 문화예술의 거리 일대 풍경을 그려보는 미술 사생대회, 청년들이 7080노래를 부르는 청춘가요열전, 금강방송이 진행한 문화산책공감 등이 진행됐다.

김성도 도시재생과장은 "주민이 직접 사업을 계획해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가 최근 지역주민, 상인, 예술인이 함께 '세대공감 문화예술의거리 예술제'를 개최했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